

고향에 못 가도 가족 못 만나도... 나눔있어 훈훈한 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설은 따스한 정을 나누는 시간
익명 기부자들이 전하는 나눔의 신비... 저만치 봄이 달려온다

삼나무 숲에 바람이 불어온다. 인디언들은 2월을 '강이 풀리고 기러기가 돌아오는 달'이라 했다. 강은 풀리고 기러기는 돌아와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일상은 버겁고 막막하기만 하다. 바이러스가 장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잃어 버렸다.

무참하고 가혹했다. 조금만 버티면 지극히 단단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기다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생명과 터전을 빼앗아 간 이 바이러스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의 습성을 닮았다.

우리는 마치 철벽같은 문에 갇히고 말았다. 그 래도 마음의 문까지 닫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 아무리 세상이 답답해도 사람살이의 정(情)은 끝내 움트기 마련이다. 과거 추억 속의 설날이 그리워했다. '식솔 많은 흥부네 끼니 돌아오듯' 했지만 우리의 설은 정겹고 낙담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내담없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물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설이 '정(情)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코로나로 부모님을 뵈 수도, 온 가족이 모일 수도, 성묘마저도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따스한 정을 나누는 일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베풀고 따스한 손길을 보내는 일 또한 변할 리 없다.

그래, 명절 때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남몰래 기부하는 이도 있지 않은가.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도 새벽에 사과 50상자와 떡국 떡 50봉지를 광주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놔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11번째 선물을 베풀고 있는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물품은 쌀 700kg, 떡쌀 396kg, 과일 864상자에 달한다. 동구 복지정책과에도 누군가 쌀 50포대를 보냈다. 쌀을 가져온 이는 "배달은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5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 그가 누구인지는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문득 박노해 시인이 노래한 '나눔의 신비'라는 시가 떠오른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이 나눔의 천사들이 있어 우리의 설은 훈훈하다. '나의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이라 했던 법정 스님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들'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이 남도의 산하를 비껴가고 있다. 아스라이 스러져 가는 눈발처럼 코로나도 그렇게 소멸됐으면 싶다. 산수유 꽃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머잖아 목련이 불을 밝힐 것이다. 저만치 봄이 손짓하며 달려오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떡방앗간의 설 준비
코로나로 부모님을 뵈 수도, 온 가족이 모일 수도, 성묘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명절 설은 늘 따스한 정이 넘친다. 바이러스라는 단단한 문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들 마음의 문까지 닫을 수는 없다. 기다란 가래떡처럼 정과 나눔 또한 그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양읍내 5일시장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고 있는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코로나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서 확진 잇따라
생활 속 방역지침 꼭 지켜야

광주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격리조치를 받지 않은 음성 확진자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7명(광주 1909~1915번)이 새롭게 등록됐다. 2명은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나왔다. TCS 국제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3명이다. 3명은 전북 김제 육가공 업체 관련 확진자(전북 1025번)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TCS 국제학교, 에이스 TCS 국제학교(누적 50명), 안디옥교회(130명), 성인 오락실(55명)에서 2주의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 1914명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자는 총 164명이다. 전체 확진자의 8.5%가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된 셈이다. 특히 최근 3개월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2명, 1월 48명, 이달 현재 23명 등 103명으로, 64%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광주시의 자가격리 조치 등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함께 음성판정을 받은 다수가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 만큼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 음성 판정자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서는 등 방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인 6일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9일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67명을 기록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단법안 2월 반드시 제정돼야"

광주·전남 상의 회장단 공동결의문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9일 "올해 2월 중 한국에너지공단법(한전공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날 "한국에너지공단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2월 제정에 당력을 총 결집하라"고 밝혔다. 지역 상의 회장단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한국에너지공단법 2월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호남지역에서는 포항공대나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반대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관련해 국회는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상의 회장단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호남과 동행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목적은 단순한 공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모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대학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에너지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 정상 개교를 위해선 오는 5월 초 대학 모집 공고 전까지, 늦어도 2월 임시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어머님께... 딸에게 띄우는 설날 편지 12면
설 연휴 TV 프로그램·하이라이트 23~25면
설 특집 28면 발행... 설 연휴 신문 쉽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연휴 날씨 전망

10(수)	☀	맑음	-2/10
11(목)	☀	맑음	0/15
12(금)	☀	맑음	1/16
13(토)	☀	맑음	2/16
14(일)	☁	흐림	3/11

◆辛丑年◆
지역의 염원을 모아
균형발전의 소망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